



전주시시설공단, 사회복지시설 주차라인 도색 봉사

전주시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지난 15일 시설 투자에 여력이 없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주차라인 도색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공단 주차운영부는 이날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소재 노인 복지시설 덕진노인복지관에서 직원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차장 총 50면의 주차라인을 도색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자체 인력과 전문 장비를 활용한 재능기부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기 위해 마련됐다. 주차운영부는 매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주차라인 도색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삼천2동 지사협, 식품꾸러미 · 희망엽서 취약층 응원

전주시 삼천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영애)는 지난 15일 저소득취약계층 100세대에 코로나19로 극복을 응원하는 희망엽서와 건강식품꾸러미를 후원했다.

희망 메시지를 전달해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기획된 이날 행사는 현미, 미역, 김, 누룽지, 우동 등으로 구성된 식품꾸러미를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했다. 김영애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소중해진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며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하루하루 소중한 삶을 꾸려나가는 우리 이웃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의 일상을 응원하고 힘든 상황을 함께 극복해나가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혁신안전보건허브 기관, 초교에 안전 신호등 우산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지난 15일 지역사회 안전보건활동을 위해 구성된 6개 기관 협의체인 ‘혁신안전보건허브’ 주관으로 전주삼천남초등학교 등 전주시 4개 초등학교에 ‘안전 신호등 우산’을 전달했다.

이날 김철환 국민연금공단 인천관리단장 등 ‘혁신안전보건허브’ 대표 6인은 스쿨존 빅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의 ‘안전 신호등 우산’ 1500여 개를 전주삼천남초등학교 등 4개교에 전달했다.

이번 캠페인 대상 초등학교는 지난해 전주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고려해 협의체 협의를 통해 선정됐다. /김윤상 기자



우석대, 비교과 서포터즈 ‘캠프 프렌즈 5기’ 발대

우석대학교 역량기반인증센터는 최근 문화관 4층 세미나실에서 비교과 서포터즈인 ‘캠프 프렌즈 5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학생 8명(전주 5명·진천 3명)으로 구성된 캠프 프렌즈 5기는 대학에서 운영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참가 안내 홍보는 물론 각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뒤 생생한 후기를 남겨 다른 학생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은 임명장 수여와 비교과 프로그램 안내, 비교과 미팅리지 정학제도인 ‘우석캠프’ 설명, 향후 활동 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정은성 기자

갓담은 김치로 온정 나눠

전북농협 · 부안농협, 지역사회와 함께 ESG 경영 실천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은 지난 15일 부안농협 육묘장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취약농가에게 김치를 담아 전달하는 나눔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김치 나눔 봉사는 부안농협과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이 겨울철 본격적인김장을 시작하기 전 김치 보리고개로 밀반찬이 떨어진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김치 500포기(1톤 상당)를 직접 담

가 전라북도 새마을부녀회(회장 김미자)를 통해 취약농가를 직접 방문해 인부를 묻고 전달할 계획이다. 김원철 조합장은 “본격적인 김장철 전에, 김치가 부족한 취약농가를 위해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했다”며 “부안농협은 계속적인 나눔과 기부로 지역사회와 농업인·국민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JB문화공간서 설채현 수의사 강연 성료

‘반려 동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중요합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끼리도 소통이 안 되는데 우리와 종이 다른 동물은 더욱 노력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들어요. 보호자들이 공부를 많이하고 알아야 합니다.’ 반려동물 전문가 설채현 수의사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현재 조건으로 적극적인 소통과 알고자 하는 노력을 강조했다.

JB금융지주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이 후원하는 JB문화 공간에서 지난 14일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천만시대’라는 주제로 설채현 수의사의 강의가 열렸다.

설 수의사는 동물행동 치료와 관련 국내 최초로 미국의 KPA(Karen Pryor Academy)의 개인 트레이너 자격증을 취득한 동물 행동치료 전문가.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를 비롯한 여러 반려 동물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동물 행동치료도 수의학의 한 분야지만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관련해 올바른 정보와 치료법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동물들의 문제 행동은 바로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관찰하고 공부하면서 해결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아지가 행복하기 위한 5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재미있게 제대로 운동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운동을 통해 세로로만 방출시키 안정감을 주고 공격성을 낮춰주는 것이 반려견들의 우울증 예방 및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려견의 비만은 생명을 단축하고,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되며 수술조차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식단 조절과 운동의 중요성을 거듭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김형년 원장, 모교 전북대에 19년째 기부



는 의미도 담았다. 그렇게 당시 2천만 원으로 시작된 기금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19년 간 나름의 부침도 있었지만 모교와 후배들과의 약속은 꼭 지켜내고 싶어 한 해도 거르지 않았다.

김형년 원장은 “대학 시절 형편이 어려워 모교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학업을 마치고 이렇게나마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늘 감사했다”며

“매년 조금씩 내가 받은 것을 돌려준다는 마음으로 대학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원장은 대학 졸업 후 제약회사에 근무한 뒤 1983년부터 지금까지 인천에서 중앙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농협 전북본부, 창립 기념 ‘사랑의 농산물 꾸러미’ 지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가 지난 15일 농협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사랑의 농산물 꾸러미’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농산물 꾸러미 나눔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노내 소외계층을 지원하기로 마련됐으며, 이날 전달식에는 장기요 본부장, 이한상 구세군 전리지방장관이 참석했다.

농협은 구세군과의 협력을 통해 도내 14개 시·군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및 코로나 19 방역 의료진에게 우리 농산물과 가공식품 등 12종의 품목으로 구성된 농산물 꾸러미 3000세트(1억 5천만 원 상당)를 전달할 예정이다.

장기요 본부장은 “전달된 꾸러미가 코로나 19로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 소외 이웃들에게 희망의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북도민과 농업인을 위한 나눔 활동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 ESG경영 실천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태권도, 전국체육대회 남자고등부 최강 입증



전북체육고등학교는 제51회 대한태권도협회장 기 우승을 하였고, 전주영생고등학교는 제31회 용인대총장기전국태권도대회 우승을 하였다. 이번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남자고등부 종합우승까지도 바리웠다고 한다.

이영하 회장은 “취임 후 첫 전국체전에서 우리 선수들이 자력으로 이룬 평가에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지

도자와 선수들에게 그동안 헌신과 헌신을 기록해온 여러분을 아끼지 않았다”며 또한 “앞으로도 전북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태권도육성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국체전 태권도 겨루기 남자고등부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한 시도는 전라북도와 울산광역시뿐이다.

/정은성 기자



지리산전북사무소, 가을 성수기 집중단속 사전예고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소장 윤명수)는 “가을철 단풍철을 맞이하여 탐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바른 탐방문화 조성과 탐방객 안전을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공원측에 따르면 금년 가을 성수기는 지난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로 해당 기간 내 산림매 체취·땔길·간간 산행, 불법 암벽·불법 주차·차박 행위 등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체취, 출입금지 위반, 야간 산행 등이며 적발시 고발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창순 자원보전과장은 “가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체취와 낯길 출입 등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탐방객에게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www.jjmaeil.com
등록번호: 경북 가00016

2004-11월 23일 5(일)
(주) 100-312 전주시 은수구 7-1 대로 222 4층 (서노승동)

발행 · 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88-8874	남원지사 632-3996	일설지사 010-9612-2725
상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655	김제지사 545-1227	진주지사 438-309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남지사 010-6845-9955	팔복지사 253-6844	순천지사 663-0444	장수지사 010-3882-6157
	군산지사 010-6789-008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의성지사 658-9923	고성지사 563-6699	

* 구독료 : 월10,000 원, 1부 500 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